

Final  
5024

## 동북아시아의 환경문제와 여성의 역할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 I. 동북아 여성환경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2002년 9월2일에서 11일까지 남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예정인 지구정상회의를 1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중국, 일본, 한국의 여성환경인들이 함께 하는 동북아 여성환경회의가 열리게 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여성들의 대안’을 주제로 하고 있는 금번 회의의 목표는 ①여성의 관점에서 본 환경과 개발문제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고 ②중국, 일본, 한국의 여성환경운동의 경험을 서로 나누고 공동의 환경의제를 개발하며 ③한·중·일간의 여성환경네트워크 형성의 기초를 마련하고 ④동북아차원의 민간환경협력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 회의의 성과물로서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회의가 동북아 여성환경인들의 2002년 세계지구정상회의를 위한 동북아 여성환경인들의 1차준비회의로서 같은 유교문화권과 비영어사용권에 속해 있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나라들의 여성환경인들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작업을 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동북아 여성환경인선언>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회의의 결의문이 그 초안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 작업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년동안 이번 서울회의에 이어서 동경 다음에는 북경 등에서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성숙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동북아여성환경인들은 현재 여기저기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구정상회의를 위한 다양한 준비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그 향방을 지켜볼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견해를 피력하고 기여해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미 여기에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일본의 오다 유끼코선생, 중국의 웨리 리아오 회장, 한국의 박은경 박사를 비롯한 동북아의 여성환경인들이 이미 개최된 준비회의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기조발제의 주제는 ‘동북아시아의 환경문제와 여성의 역할’입니다. 저의 역량의 한계와 시간적인 제약으로 단지 논의의 장을 위한 말문을 여는 역할만을 감당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 II.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환경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들에 의하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의 공동대처가 필요한 환경문제로는 ①한·중·일의 계속적인 에너지 소비증가로 대기오염은 물론 세계3대 산성비 피해지역으로 지목 ② 황사문제의 발생원인 중국과 몽골의 산림개발과 경제개발로 인한 토양유실과 사막화 현상 ③황해 및 동해의 해양과 하천오염 ④동일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동북아지역의 철새

보호 등 생물성다양성보전과 자연생태계보전의 문제 ⑤한국과 일본의 높은 인구밀도와 중국의 세계인구 1/4점유 그리고 계속되는 인구증가추세 ⑥자원다소비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문제 ⑦소득증가와 식생활변화로 인한 식량부족문제 ⑧냉전분위기 잔재로 인한 군사문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서구를 능가하는 생산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동북아를 포함한 아시아의 경제력, 소비력, 인구증가 추세는 이 지역을 최악의 오염지대로 만들 뿐만 아니라 지구운명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세계는 그 동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환경보전을 위한 과제는 어떤 구실로도 뒤로 미루어 놓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동북아여성환경인들의 역할도 촉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환경문제의 근원적인 요인은 소비재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와 인구증가와 도시화 그리고 급변 지구정상회의의 주제인 빈곤문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양식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대목입니다. 최근 지구문명의 종말을 우려하는 식자들간에는 과연 인간의 욕망의 억제 가능한가라는 논쟁들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의제21의 제4장에서 촉구하고 있는 생산과소비양식변화의 실천이 절실합니다. 리우+5였던 유엔환경특별총회에서 5년간의 의제21실천성과 평가에서 가장 부진한 사항으로 지적된 것이 환경보전을 위한 가장 원초적인 과제인 제4장이 실천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회에 참가했던 세계의 여성환경인들은 회의기간 내내 즐기차게 '실천(Action)을 외쳤던 것입니다.

여성환경인들은 오늘의 환경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거창해도 지구상의 모든 생활인들이 각기 선자리인 가정이나 직장에서 작은 실천인 물한컵, 전기한등, 종이한장 아끼는 것을 비롯한 친환경인의 생활수칙을 준수하는데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문제를 발생원에서 해결하려는 것이지요.

여성환경인들은 그들의 철저한 자원절약 원칙의 생활실천은 환경친화적인 기업의 생산과 정부의 행정을 견인해낼 수 있습니다. 여성환경인들은 또한 지구환경악화를 가속화하고있는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구조적인 폐악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여성환경인들은 오늘의 지구환경문제가 강자의 논리에 근거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성환경인들이 오늘의 심각한 지구환경문제를 초래한 지난 반세기동안의 무분별한 개발을 지켜보며 지속가능성을 개념화하는 작업에서 이 두 사안이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여성의 환경과 개발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에서는 개발과정이 빈곤의 심화, 경제 및 성적 불균형의 심화, 환경악화와 그로 인해 빈민층이 생계와 생명위험에 직면하게 된 사실을 문제삼게 되었는데 선진국에서는 강자의 논리의 주축인 인간중심주의와 남성중심주의의 대안으로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사이의 새로운 관계의 패러다임으로서 에코페미니즘을 주창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흐름의 주장들은 개발위기의식의 산물인 지속가능발전논의를 하는 회의들에서 중요한 의제로 자리잡게 되었고 지속가능성의 환경적 측면만이 아닌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는데 여성의 목소리가 보태지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 Ⅲ. 이 회의는 동북아 여성환경인들의 2002년 세계지구정상회의를 위한 준비회의라고 하였습니다.

2002년 세계지구정상회의는 여성환경인들에게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성환경인들은 그렇게 만들어야겠지요. 이번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성에 대한 쟁점들이 재 성관점화(Re-engender)하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은 영어의 젠더(gender)와 섹스(sex)를 우리 3개국의 언어로 번역하면 같은 '성'이라고 하고 있는 점입니다.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섹스는 생물학적인 성기능의 차이를 그리고 젠더는 사회,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성의 차이를 지칭하고 있어서 우리말과는 다릅니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성'이란 젠더를 의미합니다.

영국의 UNEP가 세계지구정상회의의 준비자료의 일환으로 발간한 <뉴딜-A New Deal>이라는 책자에 실린 미누 험마티(Minu Hemmati)의 '여성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글에서 보편의제21의 실천성과와 향후 실천프로그램을 여성의 관심사와 필요사항 그리고 기여사항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향적으로 분석한 미래에 대한 정책결정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험마티는 이번 기회에 여성운동은 분명히 일어나서 여기에 도전해야 한다고 있습니다.

1995년도의 UNDP의 자료에 의하면 '인간발전이 성관점화(engender)가 되지 않는 한 위험(endanger)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여성들이 전적으로 그리고 동등하게 참여하는데서 비롯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의 어느것 하나도 만연되어 있는 성적불평등과 불공정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성취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이며 유엔의제21의 제24장과 북경여성행동계획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전분야의 결의과정에서 성의 주류화의 가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험마티는 그의 글에서 세계지구정상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계의 노력으로 성취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아직 갈길은 멀다. 우선해야 할 과제는 성문제에 대한 각성과 성주류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지구정상회의를 앞두고 여성학자, 과학자, 경제학자 등의 학계의 연구조사와 기여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여성은 혁명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은 남성과의 자리바꿈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남성들과 대등한 참여를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활동과정에 여성의 대등한 참여는 과거에는 없었던 혁명적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재정이 필요한데 재원은 불투명하다'라고 합니다. 재정문제에 관한한 우리3개국의 사정도 이와 다를바 없는 것이 현실이지요. 재원확보의 문제가 또 하나의 여성환경인들이 모색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금번 세계지구정상회의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NGO여성 코카스가 우선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①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고 정부로 하여금 여성NGO들이 회의참가준비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리고 2002년 회의에 참가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 ②최신 연구결과와 확실한 정보를 근거로 논의된 성인지적인 과제들과 준비된 정책 및 전략들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두가지 전략을 기본원칙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의 접근방법으로는 우선 여성코카스가 유엔CSD위원회와 지구정상회의의 준비회의에 보내는 건의문이나 제출문건을 통해 여성관심사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지구정상회의의 다양한 회의석상에서 여성들이 현장에서 터득한 실경험과 연구결과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회의장 밖에서의 비판활동과 회의장 안에서의 목적성취활동을 겸해서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험마티는 여성환경인들이 지구정상회의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여성코카스는 세계적인 여성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여성과 관련있는 유엔기구들과의 긴밀한 연락망을 구축하고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①여성NGO들은 WSSD에 제출할 주요과제들을 확정하고 ②세계정상회의를 위해 여타 NGO나 유엔기구들의 문건의 성인지성을 점검하고 ③회의에서 활용될 자료들을 준비하고 ④NGO, 정부, 유엔기구에 성주류화의 성과를 거두기위해 일찍이 자료들을 배포하는 일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을 앞두고 있는 세계지구정상회의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에 대해 유엔기구에서 여성과 지속가능발전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험마티의 글을 통해 짐작해보면서 회의참가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Ⅵ.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의 전적이며 동등한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의 엠파워먼트가 필요하다고 여성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개념은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인류의 공동의 명제로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가버넌스(협치)’의 이론화작업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통치(government)의 시대가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가버넌스의 시대로 이동하는 시대적 조류가 형성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구환경문제의 관리와 운영을 통합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 1992년 지구 가버넌스(global governance)위원회가 일찍이 구성되었습니다. 지구환경관리운영에 있어서 특히 시민운동과 NGO의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NGO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배경에는 효율을 추구하는 시장기능과 경직되어 있는 정부정책과 관료조직의 한계 때문입니다. NGO가 지구의 공공재의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NGO는 국익추구에서 자유롭고 국경을 초월한 연대가 가능해서 국가간의 대립을 제어하고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세계화’추세에 대한 저항운동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반환경적인 사안을 저지해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의 지구적인 연대를 통해 국제정치를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그 규모와 국제적인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의 위기상황 극복에도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시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는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공적인 영역의 정부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적인 영역인 시장과의 파트너쉽에서 대등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엠파워먼트를 필요로 합니다. 엠파워먼트란 우리는 ‘세력화’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해낼수 있는 능력과 영향력인 ‘힘’을 얻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엠파워먼트란 ‘힘=권력 또는 경제력’의 기반에 접근의 기회가 박탈된 현상을 말하며 오늘의 시민사회가 처해

있는 현실을 두고 한말 같습니다.

특히 여성의 무력화현상은 시간제약으로 현황을 나열하지 못하지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국제회의에서의 해묵은 단골의제로서 남아 있습니다. 여성의 엠파워먼트란 여성들이 자기능력을 키워서 얻은 힘으로 억압의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젠더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힘은 여성들이 연대를 통해 상호협력하는데서 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성을 사회적인 억압구조에서 해방하고 사회적평등, 공정, 엠파워먼트를 달성하기 위해 성에 대처한 개발계획으로서 지난 10년간 젠더계획(gender planning)이라는 전략이 시동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gender 계획과 발전>이라는 책을 펴낸 캐롤라인 모저(Caroline Moser)는 성의 평등은 시민사회, 지역공동체, 가정에서 새로운 힘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변혁의 도입점이며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는데 절대 필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하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V. 환경문제에 있어서의 여성의 특별한 역할은 과연 있는 것입니까?

이 회의의 주제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여성의 대안'입니다. 오늘의 지구환경문제가 남성들이 발취한 강자의 논리의 산물이라고 할 때 주변부에 있어서 아직도 가능성으로만 남아 있는 여성의 잠재력과 시각이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고 여성의 참여자체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여성들은 세계13억의 절대빈곤층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기의 삶의 조건을 자기가 만드는 결의기구에서의 참여도는 한자리수에 머물러 있는가하면 취업의 기회와 노동한 대가는 남성보다 뒤떨어지며 임신과 해산으로 매일 1600명이 죽어가는데 더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노출은 지구상의 어떤 인간군에게 보다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도 여성의 독자적이며 특수한 역할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남성들에 의한 억압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강자들에 의해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피억압자들과 자연에 대한 연민의 정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성의 시각이 대안을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여성의 특별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이란 바로 약자와 강자가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고 살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일본의 여성운동이론가인 우에노 치즈코교수는 <여성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가>라는 책에서 '남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여성도 할 수 있다' '남성이 구할 수 없는 세상은 여성도 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구할 수도 있다는 여성원리를 여성들이 보다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구하는 책임을 여성들만이 질 필요는 없으며 세상을 구하는 일은 여성원리를 담지하고 있는 남성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VI. 여성들의 힘은 연대하는데서 생긴다고 합니다. 동북아 여성환경인의 연대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개개인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실천운동도 혼자서는 그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오늘의 지속가능하지 못한 세계질서의 큰 수레바퀴를 연대하지 않고 그 방향을 돌려보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금번 회의에서 동북아여성환경인의 네트워크는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묻게되는 것은 묶어진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3개국정부가 집착하고 있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개발위주의 국가시책 또는 소비미덕의 거센 생활풍조에 제동을 가할 힘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라면 무엇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의 동북아 여성환경인의 사명을 다하는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을 함께 하기 위해 여기에 우리는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기가 속해 있는 동북아지역의 국가들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동북아를 말하기는 힘듭니다. 국민소득이 세계 1,2위를 다투는 일본이 있는가 하면 세계 1/4의 인구를 안고 있는 중국이 현재의 성장추세를 지속하는 경우 2025년경에는 1억7천만톤의 곡물을 수입해야 한하는데 이 양은 생산국이 수출할 수 있는 전량에 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분단된 상황에서 남북이 모두 엄청난 군비지출을 하고 있는가 하면 경제성장의 정도에 비해 민주주의가 아직 정착하지 못한 정치후진성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여성환경인들이 지속가능한 지역환경의 걸림돌인 국가간의 갈등을 만일에 뛰어 넘어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을 성사시킬 수 있다면 그 묘책은 분명히 오늘의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환경정치의 남북간의 교착상태를 풀어나가는데 일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서구문명의 주도에 의한 근대화의 한계로 세계가 아시아의 철학에 관심하기에 이르렀고 세계정상회의에서는 서구측의 주도로 만들어진 의제21을 동양적인 관점에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동북아 여성환경인의 특수한 역할을 모색한다면 금번 세계지구정상회의에서 확실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목소리로는 그 영향력이 약합니다. 연대된 힘으로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끈질김을 발휘해야 합니다. 지속성이 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VII. 맺는말**

끝으로 당부하는 것은 이 회의가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추진되어서 2002년 세계지구정상회의에서 동북아여성환경인들의 공동노력으로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